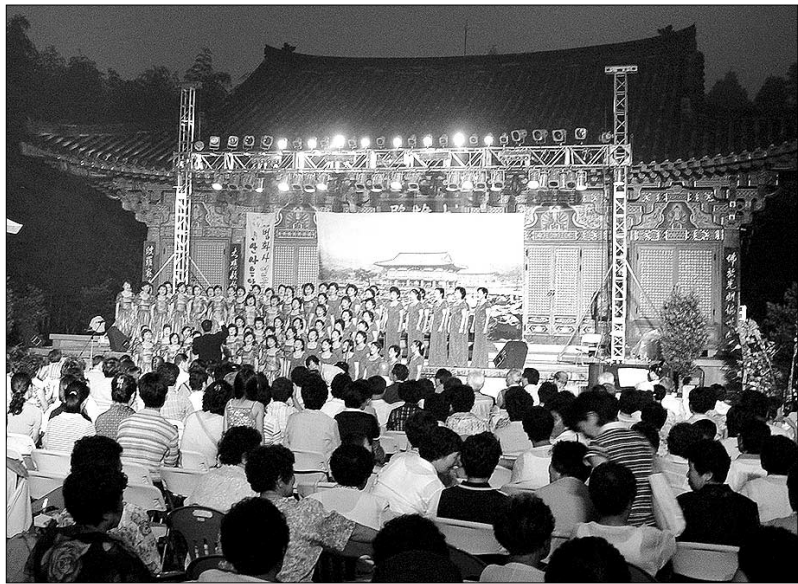


# “뜻 계승해 지역 화합 다지자”

## 제주 법화사 장보고 대사 다례제 및 연꽃축제 열어



7월 30일 제주 법화사에서 연꽃축제를 겸해 열린 장보고 대사 추모다례제.

### 蓮 이용한 사찰음식 체험도

“법화사를 장건하고 불법을 수호한 장보고 대사 영전에 백련 꽃을 우리내어 공양 올립니다.”

7월 30일, 제주 법화사 주지 시몽 스님을 비롯한 각 사암 스님과 지역 불자, 김태환 제주지사, 강상주 서귀포 시장 등 기관

장 그리고 제주시민 1500여명이 법화사에 모였다.

1000년전 제주지역에 출몰하던 해적을 소탕하고, 법화사를 중심으로 탐라불교를 꽃피운 장보고 대사를 추모하기 위해서다.

제1회 법화사 연꽃축제를 겸해 열린 장보고 대사 추모다례는 차를 비롯해 향, 등,

꽃, 과일, 마지의 함께 육법공양 의식으로 펼쳐졌다. 이날 광화 차인회 다인들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화사 구룡연지에 핀 연꽃을 채취해 대웅전 앞 월대에서 차를 우려내고, 법당 안에 봉안된 장보고 대사 영전에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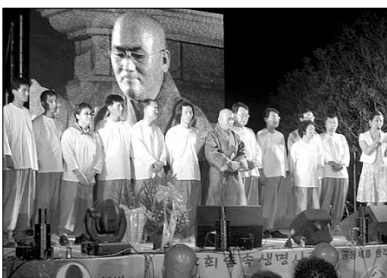
다례에 이어 ‘천년세월을 넘어 법화사에 핀 연꽃이야기’란 주제로 열린 연꽃축제에서 주지 시몽 스님은 “1000년 전 정토세계를 구현하고자 법화사를 장건하고 지역민을 구한 장보고 대사의 뜻을 계승해 종교적 거부감 없는 지역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음포교사 지범 스님과 제주시 교향악단, 지역 음악인이 출연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연꽃을 주제로 한 음악회가 펼쳐졌다. 또한 구화부와 경내에서 체험행사의 일환으로 백련차 시음과 연 국수, 연자야밥, 연잎쌈밥 등 ‘연’으로 만든 다양한 사찰음식이 선보였다.

한편 법화사는 1200년 전 창건되었으나 18세기 폐사되었으며 1982년부터 17년 동안 8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마치고 대대적인 복원봉사를 펼치고 있다. 최근 3000평 규모의 구룡연지와 구화루를 복원해 불교계와 지역민들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준영 기자

## 자연·인간 상생의 의미 되새겨

### 남해 화방사 생명사랑 음악회 개최



화방사 주지 효천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남해 화방사주지 효천가 7월 30일 '제3회 숲 속 생명사랑 음악회'를 열었다.

화방사 대웅전 앞에 꾸며진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는 천년 세월을 품은 소나무가 더할 수 없는 무대 장치가 되고, 계절을 타고 흐르는 시원한 바람이 배경 음악이 돼 참가한 3000여 사부대중의 심금을 흔들었다.

특히 이 음악회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남해 사람들의 모인(대표 효천)'이 주화한 행사로 인간과 자연 생명문화라는 공통의 화두를 들고 출범한 이 단체의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나는 행사였다. 남해 군민은 물론 인근시절 남해를 찾은 이들에게 산사의 아름다움과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을 선사하기 위한 각별한 배려가 담긴 음악회였기 때문이다.

남해 사람들의 모인 대표를 맡고 있는 효천 스님은 “자연과 하나 된 이 무대에서 본래의 마음자리를 한번쯤 되돌아보고, 내면의 깊이를 가늠해보면서 진정한 생명사랑의 가치에 눈뜨게 되는 계기가 되는 음악회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는 가수 최성수, 신효범, 김관영, 하유 스님, 화방사합창단 등이 출연했으며 노인복지시설인 화방동산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도 함께 해 훈훈함을 더했다. 천희희 기자

## 공주 마곡사 등 6개 사찰

### 충남도, 템플스테이 적극 지원

충청남도도 차원에서 템플스테이를 적극 지원한다.

충남도는 주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 도내 관공사원 다양화를 위해 관내 6개 전통사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8월 1일 밝혔다.

충남도가 지원키로 한 사찰은 공주 마곡사·갑사·영평사, 계룡산 무상사, 예산 수덕사, 서산 부석사로, 이들 사찰은 현재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사찰 인근 도로변에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연내에 설치하는 한편 이들 사찰과 템플스테이 운영 프로그램을 도청 관광안내책자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당 사찰 주변을 불교문화 교육장 및 산사 휴양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계획도 추진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 끼 맘껏 발휘하자!

### 금정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재능살리기 나서

### 그래피티, 캐릭터 창업 등 인기

8월 4일 금정청소년수련관(관장 정만).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수련관 뒷벽에 낙서를 하고 있다. 그래피티 누구 한사람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선생님이 벽에 낙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벽에 공식적으로 낙서를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프로그램은 금정청소년

수련관이 마련한 뒷담화(그래피티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벽을 그림으로 장식하는 그래피티를 배운 청소년들은 창의성이 돋보이는 그들의 도전으로 거리의 벽을 꾸미는 봉사활동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그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네이크 창업하기 ‘썸’ 프로그램과 캐릭터의 개발

에서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캐릭터 개관지기’ 등을 열고 있다. 4일에는 이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열리는 날이라 60여 명의 청소년들로 수련관이 북적 거렸다.

특히 2005년 문화관광부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캐릭터 개관지기’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해 봄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직업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정청소년수련관 윤희선 과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세계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함께 지내며 밝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된다”며 “오리, 그림, 캐릭터 개발 등 분야는 다르지만 모두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발산하는 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희희 기자

### 낙산사, 주민 위한 산사음악회

#### 18일 해수관음상 특설무대서

지난 4월 불의의 화재로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낙산사에서 상생과 화합의 음악회가 열렸다.

낙산사주지 정님은 8월 18일 저녁 7시 30분 해수관음상 특설무대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양주민들을 위로하고 낙산사 복원봉사의 원만한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세종로이스트의 연주로 꾸며질 예정이다.

낙산사 주지 정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은 “8월 3~19일 열리는 대관령 국제음악제의 일환으로 산사음악회를 준비했다”며 “고통 받고 있는 양양주민들이 잠시나마 웃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 한·몽 불교교류 본격화

#### 협회 실무진 협담답사

#### 유치원 건립 등 논의

한국과 몽골 불교계간의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교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 사무총장 선광 스님, 이수찬 사무국장, 정기조 이사 등 실무진 3명은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과 몽골의 불교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몽골을 방문하고 양국 불교계간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사)한몽불교교류협회는 조만간 이사회를 구성해 사업추진 여부를 확정하고 결정 되는대로 양국 불교계가 구체적인 공식 협정서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인각사, 삼국유사 문화제 다채

#### 제1회 일연문학상에 나희덕씨

군위 인각사주지 상인이 2006년 일연 스님 탄생 800돌을 맞아 5회째를 맞는 삼국유사 문화축제를 다양하게 개최한다.

8월 8일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삼국유사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한 일연학 학술 강연회에 이어 12일에는 일연성사 열반 제716주기를 맞아 오후 3시부터 인각사 국사전에서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또 오후 7시부터는 국내 최고인

### 대전 유성구 시니어클럽 개소

대전 시니어클럽(관장 장광이 유성구 노인복지회)이 유성구 시니어클럽을 마련하고 8월 3일 개소식을 가졌다.

대전시니어클럽은 조계종 복지재단이 대전시로부터 위탁받아 공주 갑사가 운영하는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대전시니어클럽(매기관)의 자(자)기관 유성구 시니어클럽 개소는 중구와 서구에 이어 세 번째다.

2002년 문을 연 대전시니어클럽은 유기농산물판매, 베이비시터, 도시락판매, 구두수리, 포장마차, 지하철 도우미 등의

### 기 가수들을 초청 TBC 개국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산사음악회를 진행한다. 이와함께 일연스님의 사상을 기리기 위해 4년간 개최해 온 세미나 내용을 묶어 <일연문화>를 창간, 학계와 교계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일연 스님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회 일연문학상에 시인 나희덕 씨가 선정됐다.

이외에도 일연신인문학상에 김영수 외 6명이, 청소년 문학상에 김예슬 양이 당선됐다고 인각사는 밝혔다. 시상식은 8월 12일 오후 3시 군위 인각사에서 열린다. 배지선 기자



대전 시니어클럽 관장 장광이 스님과 영흥철 대전시장(장광 스님 왼쪽)이 테이블을 커팅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올해에만 18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06년까지 1000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사업을 전개한다. 한명우 기자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 주요 수록 내용 ■  
 공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오  
 뱀이 미쳐가고 있어오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겁사남  
 임대와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결하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전 집구일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책속 부록 ■  
 ▶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꿈 해몽 비법 ▶ 띠로 보는 공합  
 ▶ 달로 보는 공합 ▶ 시(時)로 보는 공합  
 ▶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 삼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월(영월)동 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심봤다! 제2의 산삼**

심마니 토종오가피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는 옛 고전서에서 전해 내려오는 국내산 오가피에 심마니가 채취한 천종산삼의 배양근을 함유하여 우리 체질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개발되었습니다. 첨단 생산 시설에서 엄격한 품질 관리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현풍 심마니 토종 오가피에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시작하세요!

왜 심마니 토종오가피인가?  
 ■ 유효성분이 가장 좋은 100% 국산 토종오가피 (중국산의 6배)  
 ■ 심마니가 강원도에서 직접 채취한 천종 산삼 원근으로 배양한 산삼 배양근 추출물  
 ■ 홍성, 포천, 영월 등 자사 직접 원산지에서 직접 재배관리  
 ■ ISO 9001 품질인증, 식품위생안전기준 관리 기준 HACCP 인증

책자와 비디오테이프를 심마니 토종오가피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현풍F&B 02)455-1114  
 HYUN PUNG F&B CO.LTD